

統一과 環境과 現實

—南北統一의 當위성과 그 조건—

제 8차 南北赤十字 본회담을 위해 北韓측 대표가 入京하던 날, 이상 하게도 나는 종일 가슴 설레이고 있었다.

故郷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 失郷 40년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즐거운 일, 슬픈 일이 생길때마다 생각나는 故郷, 특히 舊正귀성 열차니, 秋夕 귀성객이니 할 때면 공연히 눈시울이 뜨거워 오던 40년...

1.4 후퇴 前 우리 國軍이 압록강변까지 北進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곧 故郷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매일 밤 짐을 설치고 계셨다.

여기에는 우리 땅이 이집 마당뿐이지만 고향엔 이 동네 보다 더 큰 땅이 우리 땅으로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친척이 별로 없지만 고향에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계시고 큰아버지에 작은 아버지, 이모에 사촌형 그리고 6촌, 8촌의 친척들이 백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며 기분 좋아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끝내 故郷 땅을 밟아보지 못하시고 유명을 달리하신지도 어언 30년 이제 故郷 사람이 왔다니 어찌 감회가 깊지 않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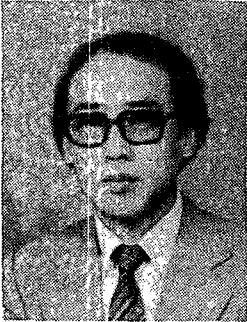
광복 4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서 이산가족교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어찌 되었거나 그렇게 저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저렇게 자주 만나서 統一의 실마리가 풀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失郷의 상처가 아파서이기 보다는 지금의 이 어려운 環境, 이 절박한 環境이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를 이 環境汚染이 統一로 회복되고, 쾌적해질 수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1.

環境汚染의 많은 원인중에서 1차적이며 또한 根本的인 원인이 인구의 과밀에 있다면 統一 그 자체만으로도 汚染은 줄일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南韓의 인구가 統一되어 北韓으로 간다면 서울의 이질식이, 부산의 저 혼잡함이, 대구의 저 밀착이, 대전의 저 뺑썰이 숨통을 터 다시 그 옛날의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朴 昌 根

(社) 環境教育會 委員長



그렇게만 된다면, 이 汚染은 줄어들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被害는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으로 세탁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수명을 따질 필요가 없다. 폐암을 겁낼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짜증, 불쾌함, 그리고 데모 따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모두가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흰 옷을 열흘입고, 철근은 백년이 넘어가고, 폐암은 남의 나라 얘기에 부드러운 말씨 조용한 행동으로 데모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좁은 우리에서 비비적거리며 아웅 다웅 살다보니, 남들 보다 편하게 쉽게 많이 살려다 보니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汚染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냐?

불안한 속에서 내일을 믿지 못하고 살다보니 조그만한 일에도 소리치고, 주먹질하고, 쏘아 죽여야 되는 그런 짐승같은 짓을 하며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統一은 되어야 한다.

넓게, 여유있게,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汚染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다.

故郷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날, 올때의 그 긴장감 대신 웃고 손도 흔들더라는 얘기...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뜻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기분은 禁物이다. 조용히 그러나 성의껏 기다려 보는 것이다. 赤十字회담이 틀어지면 國會회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이 틀어지면 經濟회담이라는 것도 있어 이것 저것 번갈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이 똑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그러다 보면 누가 알리? 정말 南北統一이 될런지?

2.

統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 놓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스스로 統一로 가는 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러워서는, 이렇게 성급해서는, 이렇게 못믿어서는 統一을 위한 작업은 할 수도 없고, 統一은 될 수도 없다.

個人的 작은 소원 하나 빌기 위해서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성껏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큰 기원, 民族的 큰 과제 하나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對策, 國民的 化습에 의한 성실한 믿음과 調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많은 統一의 조건 중에서 당장 시급한 조건 몇가지를 여

기 提示한다. 이것만 풀리면 統一이 안되어도 環境은 쾌적해 질 것이며
그러면 국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해 질 것이며 따라서 국
가도 富強해 질 것이다.

1) 여유를 갖자

지난 번 時論에서 성급함이 環境의 致命的인 敵이라고 지적한 바 있
다.

地政學的 측면에서 성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民族的 不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光復 40年—과거의 쫓기던 기억쯤은 잊
을 때도 되었지 않은가? 언제 우리가 쫓기고 살았느냐고 그렇게 마음
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버티고 살 때도 되었지 않은가?

서둘러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는 사실, 아니 서둘러서는 아무 것도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보고 가슴 아파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성급함이 무엇이 되었는가를 찾기 위해 애써 옛날 일 까지 들
추어 낼 필요는 없다. 극히 최근에 일어난 일 몇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 주, 서울市에서는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 남산 1호 터널이 심
한 누수로 붕괴 위험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남산 1호 터널이동양에서
제일 빠른 工期로 完工한 터널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
이었는데...

工期의 빠름을 자랑할 때 이미 알아 봤다. 계획을 짜고 측량을 하는
시간, 굴을 뚫는 시간, 시멘트가 굳는 시간 등등 土木工學的으로 소
요되는 시간이 뻥한데, 어떤 귀신 잡는 솜씨를 부렸기에 工期를 그렇
게 단축할 수 있었겠나? 그것은 뻥한 서두름, 날림工事(?)가 아니면
안될 솜씨는 아니었는가? 뿐이라? 바로 얼마전, 여의도에 63층 동
양 제 1의 빌딩이 섰다고 까불어 대기에 그런가 했더니, 아직 준공검
사도 나지 않은 처지라고 한다. 그리고 그 63층 빌딩에 들어설 사람,
자동차 등은 사전에 계산도 하지 않았던지 이제와서 주차장이 어떻게,
교통량이 어떻게 是是非非하니 이것이 우리네 성급함의 결과다.

굴이, 건물이, 다리가, 지하철이 이러니 예민한 공기와 물 그리고 토
양 등의 환경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뻥하다.

2) 밀어야 한다.

성급함이 날림을 낳고, 날림은 不信을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 우리들 주변엔 온통 不信의 눈초리, 不信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작게는 市場의 物件에서 부터 크게는 國事의 論議에 이르기 까지
그 폭은 매우 크다.



몇가지 예를 보면, 國産을 不信하니까 어린이들 과자 포장에도 온통 英文을 表記하다 못해 세계적인 유명 상표를 들여와 쓰는데 이걸 교묘히 이용해 不信을 만드는 것이다, 즉 NIKE를 NICE로 ADIDAS를 ADIADS로, PRO-SPECS를 PRO-SPORT로 NATIONAL을 NATION 으로 SONY를 SANY등 예를 들면 끝이 없을 정도다. 얼마전 開院된 國會를 보면 더 한심하다. 政府의 發表는 못 믿겠다는 野黨에 믿을 수 있게 처신하지 못하는 政府, 그래서 5年前 光州사태 死亡者 수가 2,627명對 191명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낳고 분명 아닌데도 그렇다고 우기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不信의 大會場 같은 인상이다.

環境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서울의 수도물을 못 믿어 자연수를 사다 먹거나 정수기를 통과한 물이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에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 자기 식구만 농약 안뿌린 쌀만 먹으면 된다는(잔류독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공기는 어떻게 하고...) 바보에, 정부의 汚染値 발표에 한 술 더 떠 높이 評價하는 노이로제 환자 등...

3)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이 모든 성급함, 이 모든 不信은 우리의 환경이 惡化되어 있는데 연유한다. 오염된 공기, 소음, 악취, 더러운 물, 회색의 건물, 조잡한 간판, 숨막히는 공간 등 그런 환경이 우리를 성급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이 되기 위해서는 성급함과 不信을 씻을 수 있는 조건, 즉 환경 부터 改善해야 한다.

첫째, 지금 당장 都心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형식적인 街路樹가 아니라, 빌딩의 울타리가 아니라, 질고 푸른 그럴듯한 나무를 남아 있는 모든 공간에 심어야 한다.

그래서 그늘이 되고, 산소가 되고, 푸르름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여유를 주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둘째, 都心을 더 Smog 色으로 어둡게 하는 빌딩의 Smog 色 벽은 보다 밝고, 맑은 色으로 바꾸어야 한다.

푸른색도 좋고 綠色도 좋다. 나무를 그려 넣고, 꽃을 그려 넣고, 사슴도 그려 넣고, 호랑이, 여우, 토끼, 참새, 갈매기, 부엉이, 백로를 그려 놓아도 좋고, 봉어, 문어, 조개를 그려 놓아도 좋다. 그런 자연을 빌딩의 벽마다 그려 놓아 사람들을 자연속에 있게 하면 사람들은 새가 된 듯, 토끼가 된 듯, 오징어가 된 듯, 잠자리가 된 듯,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면만...

그림을 그릴 때에는 땅바닥에도 그리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육교며 지하도에도 그리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전경의 방패에도 그려 로마 병정같이 살벌한 분위기를 부드럽고 마음 놓이게 바꾸자.

그림은 도날드의 오리도 좋고, 미키의 작은 쥐도 좋다. 그림을 보고 웃으면 화도 풀리고, 화가 풀리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都心에 분수를 많이 만들고, 진공기를 많이 설치하자.

오염된 공기를 분수로 씻어내고, 진공기로 빨아 들이면 기분으로도 공기가 맑아져 짜증도 가시지 않을까?

하여간 이런저런 모든 지혜를 동원해 환경을 改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致命的인 惡, 그 성급함과 不信을 없애버리지 못해 애써 이 時點에 까지 이끌어 온 南北赤十字회담, 南北經濟회담, 南北議員회담을 무산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가능할 지도 모를 南北體育회담, 南北藝術회담 그리고 南北環境人회담이 다만 우리의 꿈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릴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서건 南北은 統一이 되어야 한다. 40년의 긴 失鄉의 고통 때문에서도 아니고, 백두산을, 금강산을, 명사십리의 해당화를 보고 싶어서도 아니다. 오직 우리 民族은 統一이 되어야만 남의 나라 사람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民族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汚染, 이 環境의 惡化도 統一이라는 그 하나의 現實로도 改善될 수 없는 不幸이기 때문이며 아직은 고향에 老母가 계시고 아직은 고향에 동생이 있고 아직은 고향에 두고 온 어린 딸이 있어 統一의 명분이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統一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統一은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不信을 씻어 없애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환경은 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나는 故鄉으로 가고 싶다.

내 고향 羅南엔 어머니가 계신다.

내 고향 羅南엔 형님이 계신다.

내 고향 羅南엔 우리 동네 보다 더 넓은 내 땅이 있다.

그 땅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의 아들이, 내 딸의 딸이 그 나무 그늘에서 푸르른 理想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